인쇄 취소

국민일보
www.kmib.co.kr

포항시,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기업 MOU 체결

입력 2020-08-26 12:01

26일 경북 포항시와 8개 기업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. 포항시 제공

경북 포항시는 26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곳과 투자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이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은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만6848㎡ 부지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주요 투자업종은 바이오·IT·첨단신소재 분야이다.

8개 기업 중 서울에 본사를 둔 ㈜화이바이오메드를 제외하고 7곳이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다.

㈜에이엔폴리, ㈜원소프트다임, ㈜바이오컴은 포스텍에서 시작했고 ㈜이너센서, ㈜이브이에스, ㈜휴비즈아이씨티는 포항TP에서, ㈜아이언박스는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이다.

시는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타지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.

이강덕 포항시장은 "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R&D인프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"라고 말했다.

포항=안창한 기자 changhan@kmib.co.kr

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.